

# 교차문화윤리와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

이해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 • 이주와 교차문화윤리<sup>1)</sup>

우리는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무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더욱 정확하게는 내가 누구였던 경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지에서 왔어요?”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받은 이 질문에 비로소 나 자신이 ‘육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를 행정단위인 제주도(道)보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島)로 인식하고 있는 나는, 도(島)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육지인인 것이다. 서울에서 늘 스스로를 조선족 동포 이주민으로 규정하던 내게는 신선한 교차문화 경험이었다.

홍콩과 대만 사람들은 중국인을 대륙인(大陸人)이라고 부른다. 홍콩과 대만 입장에서 중국 본토인은 당연히 육지인이다. 서울 화교권 학생들이 다니는 한성화교학교는 몇 년 전부터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많아지자 따로 대륙반(大陸班)을 만들었다. 한 번도 자신을 ‘대륙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 본토 청소년과 가족들은, 한국이란 곳에서, 대만과의 관계 속에서, 육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문화인류학에서 강조하는 ‘낯선 곳에서 나를 보는’ 관점, 즉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성찰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교차적 맥락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주의는 지식의 객관성에 대해 상황적 맥락과 덜 편파적인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성주의 철학자 샌드라 하딩(Sandra G. Harding)은 중심과 주변부의 위치성을 통해 ‘강한 객관성’을 논증한다<sup>2)</sup>. 주변부에 있을 때는 중심과 주변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에 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덜 편파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심에 있을 때는 주변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늘 남성이라는 중심의 주변부에 존재해왔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왔더니 서울 중심성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낯선 덕: 다문화 시대의 윤리』에서 버나드 T. 오드니는 교차문화 속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시대의 윤리를 탐색한다. 그는 다른 문화권에 진입할 때는 해당 문화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문화권의 지식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정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한다. 그가 강조하는 교차문화윤리의 두 가지 핵심은 바로 문화상대주의와 성별 감수성이다. 그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 머물면서 발견한 점은 우리의 지식에는 보편적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신앙조차도 문화적인 맥락 속에 구성된 상대적 진리라는 점과 거의 모든 사회에 성별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교차문화윤리는 국제결혼가족 안에서 더욱 치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족 동포 여성들의 다문화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 가족 내 교차문화윤리

조선족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중국 동포’, ‘조선족’, ‘조선족 동포’, ‘조선족 교포’, ‘한국계 중국인’, ‘연변사람’으로 불리는 조선족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중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해외동포로 받아들

여지는 것 같다.

오드니가 말한 교차문화윤리는 다른 나라, 다른 종족 사이의 교차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윤리성을 강조한다면,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같은’과 ‘다름’의 중첩 속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교차문화윤리에 직면한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적용 대상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로만 한정하여 100여 년 전 조선반도의 자연재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으로 중국에 건너간 조선족 동포가 배제되었다<sup>3)</sup>.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는 동포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같은 민족성’이 박탈되는 교차적 맥락에 빠지게 되었다.

조선족 동포 결혼 이주여성들은 어떠할까? 필자는 처음 한국에 유학 왔던 2000년 어느 옷가게에서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결혼해서 왔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라며 질문을 퍼부어 서둘러 나와버린 경험이 있다. 당시만 해도 젊은 조선족 여성은 곧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과잉된 이미지가 있었다.

90년대 초 한국인 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 결혼 장려’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줄 정도였다. 조선족 여성을 국제결혼 대상으로 ‘선호’한 것은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어 ‘순수한 혈통’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선 조선족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는 감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민족대학교인 연변대학교를 세웠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설립할 만큼 중국에서 스스로 민족성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낸 역사를 갖고 있다. 동시에 몇 세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사회문화를 내재화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

1) 이 글의 1장 이주와 교차문화윤리 내용은 여성신문 2017년 6월 21일 1445호 지면 FICT 코너/여성과 세계에 “이주와 교차문화윤리: 육지에서 왔어요?”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1장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샌드라 하딩 지음,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2009.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함께 배제되었다.

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민족적 정서가 연결되지만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복합적인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훨씬 어려운 교차문화적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국제결혼가족 안에서 조선족 여성이 ‘같은 민족인’, ‘중국인’, ‘아내/며느리/어머니’라는 중첩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한민족’, ‘한국인’, ‘남편/시아머니/자녀’와 대면하는 상황은 어떠하고, 이 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일까?

1990년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3.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sup>4)</sup> 맞벌이 의식도 강했다. 몇 차례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유교 문화가 ‘낡은 악습’으로 치부되었고 가족 내 위계 문화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조선족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전업주부’ 개념, 견고한 가족 내 위계 문화에 큰 문화충격을 받는다. 다른 국적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르게, 조선족 여성은 언어소통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가족문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알아들으면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거나, “알아들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장벽을 깊이 깨닫고 뛰쳐나오게” 된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한 조선족 여성은 중국에서 20대 때 자영업으로 꽤 큰 돈을 축적한 독립적인 사람으로, 중국에 놀러 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언어소통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을 못하게 하고, 전업주부 역할을 강요받으며, “도망갈까 감시받는 존재가 되다 보니 자존심이 심하게 깨져” 끝내 이혼을 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교차문화윤리에 직면하지만 다른 해법을 찾은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조선족 여성은 본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 참여를 시댁 식구들이 존중해줬고, 시부모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까지 지원해주면서 국제결

혼가족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 ●

### ‘조선족’출신과 교차문화윤리

필자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이주여성 민간단체 “생각나무BB(이중언어-이중문화)센터”는 사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녀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 고민은 바로 자녀들이 한국 출신이 아닌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엄마의 출신이 자녀에게 ‘누’가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엄마 출신 때문에 차별 받을까 봐 국적 취득 후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 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고민은 조금 더 남달랐다. ‘같은 민족인’으로서 한국어가 능숙해지면 한국인으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조선족 출신임을 모르고 지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엄마 출신을 감지하거나 묻게 된다. 이런 교차문화 윤리에 직면한 엄마들은 ‘현명한’ 대답을 내놓기 어렵고, 결국 자녀들한테 ‘실패’를 잃게 되고 ‘자기 존중감’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녀가 철들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족’출신이 가족, 지역사회, 학교 모든 곳에서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응과 좌절은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의 ‘실패’ 형성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파가 매우 크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은 사례도 있다. 필자가 인터뷰했

던 한 조선족 여성은 90년대 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이가 엄마 출신을 물어올 때 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줬던 경험을 들려줬다. 이 여성은 아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만약 네가 커서 중국으로 가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 너는 한국사람이니 중국사람이니?” 아이는 당연히 한국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 여성은 다시 “엄마의 할머니가 한국(한반도)에서 살다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고 오래오래 살다보니 엄마의 엄마를 낳았고, 그래서 엄마는 중국에서 26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 엄마는 한국사람이니 중국사람이니?”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런 배경을 가진 엄마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마 엄마는 아이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도와줄 것이다.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은 ‘같은 민족 여성’으로서 국제결혼 대상으로 환영받지만,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더욱 민감한 윤리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한편 조선족 사회에서는 가임기 여성 유실이라는 낙인이 찍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교차문화윤리는 국적, 민족, 종족, 세대 등 복잡한 갈래의 맥락들이 얹혀 있고, 성별에 따른 위계 문화가 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몇 가지 긍정적인 사례처럼 한국의 가족문화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있기에 교차문화윤리의 해법은 그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 ●

### 나가는 말

최근에는 조선족 동포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대부분은 본인과 자녀의 출신에 대한 교차문화윤리적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우리 대부분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나와 다른 문화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수긍하는 편이다. 오드니는 이주민(국내 이주민이든 국제 이주민이든)은 ‘이방인’이 갖고 있는 타자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사회의 견고한 성별 장벽에 균열을 내고, 맥락에 따라 성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방인이기에 해당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겸허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가진 사회문화자원을 지역사회의 평화와 풍요를 위해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윤리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의 윤리는 국가보다 작은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 안에서도 더욱 공유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sup>5)</sup>

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6)